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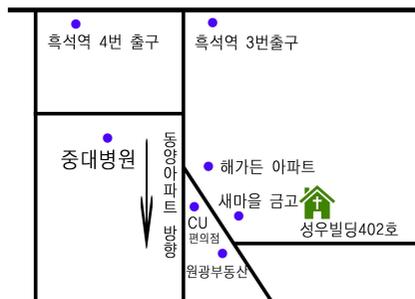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주일 오전 11:00	<b>부서예배 및 모임 (주일)</b>	
<b>저녁기도회</b>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 리 아 회 오후 1: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진만 전임전도사 권인혁 협력전도사 오효남	<b>파 송 선 교 사</b>	강성규 (러시아)
		<b>협 력 선 교 사</b>	양병순 (카자흐스탄) 이금주 (미국)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b>장 로</b>	<b>유 신 응</b> (집사장) 김대희 박희태 조윤익 한배선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80 서울 동작구 서달로8가길 9 성우빌딩 402호 (흑석동 95-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b>삶의 방식</b>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송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b>오전 예배</b>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 독 문	교독문 21번(시편 34편)	
찬 양 과 경 배	542장 (통일찬송가 340장)	
예 배 기 도	유신용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갈라디아서 3장 1~3절	
설 교	어리석은 사람들아 (임춘배 담임목사)	
헌 금 드 림	김계모 김명옥 김혜숙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b>수요 예배</b>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등불 점화 (민수기 8장) 임춘배 목사		

- |             |                             |
|-------------|-----------------------------|
| <b>교회소식</b> |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
- 맥 추 감 사 주 일** 다음 주일(7월 2일)은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 제 직 회** 다음주 (7월 2일) 주일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 성 경 암 송 대 회** 일시 : 오늘 예배 후  
범위 : 2017년 성경암송구절 프린트 앞면  
방법 : 작년과 동일하게 시험 형식  
시상 :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  
가산점 : 청소년부 이하와 바울 에스더 65세이상은 20~50% 부여
  - 전 교 인 수 련 회** 장 소 : kobaco 연수원 (경기도 양평)  
기 간 : 2017년 7월 30일(주일)~ 8월 1일(화)  
강 사 : 원주희목사(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  
- 위원장 : 편도선집사  
- 위 원 : 방성자집사, 장수정집사, 손정한집사, 손영삼집사, 이광순집사, 류은영집사, 최영석집사
  - 사 무 실 이 전** 6월 27일(화) 사무실 이전 예정입니다.  
이전 주소 : 동작구 흑석동 86-60번지 2층  
\*28일(수)부터 기도회 및 새벽예배는 이전된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 사 택 이 사** 7월 1일(토) 사택이사예정입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 일 성 경 강 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안산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관악셀**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경강론 6월 셋째주 범위						
6/26	6/27	6/28	6/29	6/30	7/1	7/2
	민수기 6장	민수기 7장	민수기 8장	민수기 9장	민수기 10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찬송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통 434)

본문 : 창세기 46장 28~34절

말씀 : 두 형제의 상봉 이후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을 거쳐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디나 사건이 있은 후 벧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정을 떠나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을 묻고, 마므레(헤브론)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그곳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유학을 가거나 군에 입대하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겠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브엘세바에 들러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함께 떠난 이스라엘의 가족 명단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을 떠남에 있어 가족들 모두의 이름이 함께 있습니까. 행여 누구는 그 여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않았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만나 읍니다. 너무 기뻐서 읍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하지 못한 아들 요셉이 이제 그 여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가족 명단에 요셉의 식구도 넣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던라.'(27절)

그들이 애굽에 이르자 바로는 그들의 직업을 묻습니다. 이에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목축이 애굽에서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기왕이면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지 애굽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이 뭐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이었다면 그들과 동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었기에 어울리지 않았습니.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성수가 가능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직장이 믿음의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아보일지 모르나 이로 인해 세상과 동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어리석은 사람들아 (갈3:1~3)

서론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어리석게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어리석은 이유

- (1)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고도 거짓 선생의 꾀에 넘어감
- (2)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
  - ① 메시아(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
  - ② 나에게 필요한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 ③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알려고 애쓰기 때문

본론

2. 교훈

- (1)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
- (2) 사람들의 이야기에 유혹되지 말고 확실한 말씀을 신뢰하라.
- (3)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3절).

결론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용 장로	조운익 장로
헌 금 위 원	김계모 김명옥 김혜숙	조계승 지영 편도선
안 내	안산셀	관악셀

매일 성경 강독

나실인

날짜 : 6월 26일

찬양	은혜가 풍성 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통일 찬송가 178장)
통독	민수기 6장
본문 내용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세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셋째, 시체를 가까이하면 안 됩니다. 예기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했으면 정해진 규례를 행한 후에 서약을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한 기간이 끝난 나실인은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린 후에 머리털을 밀니다. 또 제사장은 나실인의 두 손에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요제로 흔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축복할 기도문을 알려 주십니다.
생각해보기	
1	<p>나실인 제도</p> <p>(1) 나실인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p> <p>(2) 지켜야 할 사항: ①포도나무 소산 취식 금지 ②머리에 삭도 금지 ③시체 접근 금지</p> <p>(3)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를 자발적으로 결심해보자.</p>
2	<p>제사장의 축도</p> <p>(1)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책임을 주셨다.</p> <p>(2) 간구내용: ①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②은혜 베푸시기를 ③평강 주시기를</p> <p>(3)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절히 간구하자.</p>
핵심 단어	6:2 나실인 (ryzIn; 나지르): '나실인'이라고 번역된 '나지르'는 '구별하다', '떠나다',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자르'에서 유래하여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헌신 기간을 기 준해 볼 때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일시적 나실인과 일평생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종신 나실인이 있었다. 또한 서원의 동기는 개개인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의 서원이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으로 시행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한 후 지켜야 할 규례는 첫째 독주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 소산물을 멀리할 것,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셋째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 등이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이 '나실인' 이 된 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구전된 유대인의 율법을 모은 미쉬나도 여성에게 나실인의 서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고통 중에도 사명을 이어 가다”

찬양과 기도	주님이 주신 땅으로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통 401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같은 동네에 한 주정뱅이가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부스는 그를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했지만 주정뱅이는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거절당하자 부스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 길거리에서 주정뱅이와 마주쳤지만 또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부스의 뒤에서 주정뱅이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만약 내가 당신이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같이 전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소. 몇 번 말을 건네서 교회 나갈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소?” 이 말을 들은 부스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부스는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선불리 전도하려다 괜히 관계까지 상하는 거 아니야?’ 전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다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과거 거절당했던 전도 대상자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절감 때문에 마음을 닫고 시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민수기 20:14~29
묵상포인트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의 불평을 받아 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야곱과 형제지간인 에돔(에서) 족속 왕의 완고한 거절에 감정적으로, 무력으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분노 대신 온유함으로 먼 길을 돌아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므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해 자신과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먼저 죽는 큰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온유함으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불평, 거절, 슬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적용하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한꺼번에 경험해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견뎌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모세의 온유함을 제게도 주셔서 불평, 비방, 거절, 슬픔 등의 상황에서 분노로 맞서지 않고 온유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행군 나팔

날짜 : 6월 30일

찬양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통일 찬송가 197장)
통독	민수기 10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팔 소리는 백성을 불러 모을 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때, 행진을 시작할 때에 신호가 됩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만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 지도자의 인솔을 따라 자기 위치에서 지파별로 행진합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바란 광야에 이릅니다. 모세는 자신의 처남인 미디안 사람 호박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동행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호박이 거절하지만 모세는 거듭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 칠 곳을 찾습니다.
생각해보기	
1	<p>행군나팔 신호 규정</p> <p>(1)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군이 시작됨</p> <p>(2) 행군을 시작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은나팔 제작 지시와 그 나팔을 부는 여러 신호 규정을 정함</p> <p>(3) 나팔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자.</p>
	<p>이스라엘 진영의 행군순서</p> <p>(1)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언약궤의 뒤를 따라 그들의 진지를 이동했다.</p> <p>(2) 행군 순서는 유다,이사갈,스불론/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성막)/르우벤,시므온,갓/고핫자손(성물)/에브라임,므낫세,베냐민/단,아셀,납달리</p> <p>(3) 레위지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유는 성막과 성물을 보호함과 함께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p>
핵심 단어	<p>10:21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a:BAAd[ @K:v]MihAta, Wmyqihew, 웨헤키무 에트 함머쉬칸 아드 뽀암): 한글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모두 성막을 세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17절을 참조하여 볼 때 성막을 세우는 일이 성막을 옮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성막 세우는 일을 끝내야만 고핫자손이 성물을 제대로 옮겨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보다 미리 도착해 성막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p> <p>한편 ‘그들이 이르기’ 에 해당하는 ‘뽀암’ 은 ‘오다’, ‘들어간다’, ‘이르다’ 등의 뜻을 지닌 부정사 연계형에 ‘그들’ 을 뜻하는 대명사 접미어가 결합된 형태이다. 여기서 ‘그들은 곧 고핫 자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세웠으며’에 해당하는 ‘웨헤키무’ 는 ‘일어나다’ 란 뜻을 가진 ‘쿨’ 의 사역형으로 ‘그들이 세웠다’ 란 뜻이며 여기서 그들은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을 가리킨다.</p> <p>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에 고핫자손이 운반하는 성물이 지체없이 질서 가운데 성소에 안치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시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추해 볼 때 우리의 삶이 만약 무질서하며 혼란스럽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성막봉헌

날짜 : 6월 27일

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통일 찬송가 245장)
통독	민수기 7장
본문 내용	성막이 완성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 예물은 직임대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물을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은반, 은바리, 금순가락 한 개씩과 향, 소제물, 번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입니다. 열두 지파는 12일 동안 매일 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은반 열둘, 은바리 열둘, 금순가락 열둘과 번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많은 짐승을 제단 봉헌 예물로 드립니다. 이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생각해보기	
1	<p>성막 봉헌</p> <p>(1) 성막 완성 후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p> <p>(2) 이스라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사용하도록 분배함</p> <p>(3) 위치와 직무가 달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일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참여해야 한다.</p>
핵심 단어	<p>7:5 직임대로(/td;bo[ ypiK, 케피 아보다토): ‘직임’이라고 번역된 ‘아보다토’는 본절에 ‘봉사에’라고 번역된 ‘아보다트’ 와 동일하게 ‘일’ 이라는 뜻의 ‘아보다’가 원형이다. 즉 한글성경은 동일한 문맥일 수밖에 없는 한 절 안에서 동일한 단어나 마찬가지로 ‘아보다트’와 ‘아보다토’를 ‘봉사’와 ‘직임’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KJV나 NASB 등 영역본 성경들이 ‘섬김’ 등의 뜻으로 두 단어를 모두 동일하게 번역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일은 문맥상 직책의 의미가 강하므로 한글성경에서도 ‘직무’ 로 통일해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레위인들의 직무는 각 계보별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먼저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 까지 남자의 수가 2,630명이 되는 게르손 자손들은 제 1,2 양장과 덮개, 문장,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줄을 운반했다. 다음에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명인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일은 상, 등대와 단들과 그 밖에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과 휘장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인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은 성막에 딸린 널판, 띠, 기둥, 받침 등의 기구와 뜰에 딸린 기둥 등의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구들이었다.</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등불 점화

날짜 : 6월 28일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통일 찬송가 351장)
통독	민수기 8장
본문 내용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금등대를 만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몸을 정결케 하고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면 아론은 하나님께 그들을 요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직무를 다합니다.
생각해보기	
1	성소 등불 점화 (1) 성소 안에 등불을 항상 밝히려는 하나님의 명령과 제작법에 따라 등잔대 만들 (2) 등불은 어두움으로 대변되는 사망과 혼돈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 (3) 교회(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과 죄악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언제나 감당해야 한다.
2	레위인 정결 예식 (1)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을 성별하는 예식 규정 (2)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로 온 몸에 난 털을 밀게 한 다음 의복을 빨게 함, 그 뒤 레위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하고 아론이 요제드림 (3)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8:2 일곱 등잔을... 비취게 할지니라(t/rNEh t['b]v Wryaiy; 아이루 쉬브아트 한네 로트): '아이루'는 '(빛을) 발하다', '비취다'란 뜻을 지닌 '오르'의 사역형으로 '(빛을) 비취게 하다'란 뜻이다. 그리고 '쉬브아트'는 '일곱'을 뜻하는 수사 '쉐바'의 여성형이다. '일곱'이라는 숫자를 전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성경 외 용례를 통해 볼 때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예가 많다. 여기서도 일곱 등잔으로 이루어진 등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성소의 성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 또는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 한편 등대 앞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진설병 상이 있었다. 물론 등대의 빛은 우선 성소 안을 환히 밝혀 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처럼 등대의 빛이 등대 앞을 비추어 진설병을 향하도록 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제사장의 제사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진설병을 비추는 등대의 빛 속에는 어두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등대 앞에 배설되어 있는 진설병이 상징하는 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암흑을 몰아내시는 생명의 빛이기도 하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첫 유월절

날짜 : 6월 29일

찬양	심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39장/통일 찬송가 496장)
통독	민수기 9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내려와 성막을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정지하고 진을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거나 멈추어 진을 칩니다.
생각해보기	
1	첫 유월절을 지키 (1)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문제점을 보완함 (2) 광야에서 맞은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출애굽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었고 또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다. (3) 유월절 예식은 인류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 한다.
2	불기둥과 구름기둥 (1)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고 여행 중에도 계속 인도함 (2)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가지적으로 보게 하심 (3) 영적 가나안을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을 광야같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자.
핵심 단어	9:19 여호와와 그의 명을 지켜(hw'hy_ tr,m,v]miAta, Wm]v:w_ 워쉬메루 에트 미쉬메레트 에흐와): '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18절과 달리 '페'가 아니라 '미쉬메레트'이다. 이는 '지키다', '경계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와마르'에서 유래한 명사로 이 어근의 기본적인 개념은 '~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다'이다. 이 '미쉬메레트'는 단순히 '명령'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로는 수행해야 되는 책무 혹은 봉사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이러한 뜻을 살려 제 23절에서는 '직임'으로 8:26에서는 '직무'로 각각 번역되었다. 둘째로 유월절 어린 양, 만나, 붉은 암송아지의 재 등과 같이 간직하거나 보존해야 할 것을 나타낸다. 한편 '지켜'로 번역된 '쉬메루' 역시 그 기본형은 '와마르'로서 이 동사는 주로 언약, 율법, 법규 등을 주의하여 지키는 것을 표현한다. 따라서 본문은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머무르면 진을 치는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언약 백성의 책무를 수행하는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마지못해 추종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의식하에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지키라'란 말에 '행하라'는 표현까지 자주 첨가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